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에 구현된 부르주아의 남자다움 이데올로기에의 복종

구승분*

-차 례-

1. 들어가는 말
2. 부르주아 남성 전문가 집단의 이데올로기
3. 의무의 해제와 의무의 재봉인: 하이드와 지킬
4. 감시와 고백의 유대: 어터슨과 지킬
5. 나오는 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을 19세기 후반 영국의 부르주아 전문가 신사집단의 자기수양, 절제, 품위로 대표되는 이데올로기적 가치가 지킬과 어터슨의 의식, 양심,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는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킬은 하이드라는 자기 분열적 이중적 자아이자 원초적 욕망을 구현하는 자아의 반사회적 행동을 통해 잠시나마 자유를 만끽하지만, 범법 행위에 대한 죄책감,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고통을 겪는 주체이다. 의무의 해체라는 어구가 갖는 다중성과 모순성을 통해서 사회, 도덕, 관습이 요구하는 행동 규범으로부터 탈피해서 개인적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자아의 욕망뿐만 아니라, 행위 결과를 의식하고 자기 반성적 지킬의 고백적 서사에 투영된 부르주아의 규범적 지배 이데올로기의 작동이 우위를 점하게 되는 양상을 살펴본다. 작품 속 남자다움과 신사의 가치를 가장 잘 구현하고 있는 어터슨을 지킬로부터 하이드라는 광기와 폭력성의 근원을 제어하려는 지식과 권력이 융합된 지배 담론의 실천자로 파악한다. 그는 하이드를 자아의 의식과 심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위협적 타자로 여기고 그를 통제 장치 속에 가둠으로써 자아의 안정성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주제어: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 지킬 박사, 하이드 씨, 남자다움, 전문직, 해체, 아브젝시옹, 알레고리, 장치

1. 들어가는 말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Robert Louis Stevenson)의 1886년에 출간된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은 지킬 박사(Dr. Jekyll)의 자아 분열과 이중의 삶을 하이드 씨(Mr. Hyde)라는 존재를 통해서 재현한다. 지킬의 감각적 욕망 추구, 하이드의 폭력성과 잔혹성, 범죄 사건에 대한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반응, 지킬이 삶을 극단적으로 마감하기 전 서술한 고백적 참회의 진술문을 통해서 선과 악의 문제, 인간 주체의 자기동일성의 환상에 대한 파괴, 행위에 대한 자기 정당화 및 참회의 고통 등의 문제를 다룬다.

스티븐슨의 이 작품을 논의한 최근의 비평을 소개해 보자면, 우선 스테판 아라타(Stephan Arata)와 같이 하이드를 문명사회의 퇴행적 행태로 간주하고 이를 “원시적 회귀”(atavism)¹⁾와 연결하면서, 하이드와 지킬을 대립 관계가 아닌 유사한 차원의 인간으로 평가하는 시도가 있다. 이러한 입장은 하이드는 악을 상징하고, 지킬은 자기 내면의 악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억누르며 참회하는 선한 자아를 대변한다는 단순한 이분법적 구분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킬이 비록 하이드와 달리 폭력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의 사회적 명성을 보호하는 데 몰두”(Arata 241)하는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의 비양심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엘레인 쇼월터(Elaine Showalter)는 이 소설이 “남성 히스테리아”(male hysteria)에 대한 사례 연구로서, “19세기 말 동성애와 관련된 공포를 다룬 우화”라고 정의한다(107). 동성애를 범죄시한 당대 엄격한 사회 분위기에 불구하고 빅토리아 시대 말기에 활약한 작가들, 대표적으로 오스카 와일드(Oscar Wilde)와 존 애딩턴 시먼즈(John Addington Symonds)의 동성애적 삶과 스티븐슨의 그들과의 친분 및

1) 영어 단어 “atavism”은 앞선 세대에서는 보이지 않은 먼 조상의 생물학적 성질이 현세대에 다시 발현되는 것을 말하며, 우리말로는 “격세유전”으로 번역된다. 비유적으로는 행동, 관습, 사고방식이 원시적 상태로 회귀하는 것을 뜻한다. 비유적 의미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필자는 “원시적 회귀”로 번역한다.

교류 등을 거론하면서 작품 속 ‘퀴어’(queer)²⁾를 암시하는 여러 어구 및 상황 등에 천착한다. 특히 시먼즈가 이 소설이 출간된 해인 1886년에 스티븐슨에게 보낸 편지에서 “우리 대부분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 하이드 씨가 되기 직전까지 같을 것입니다”(재인용 Showalter 115)라고 쓴 대목은 시먼즈 자신의 동성애적 삶을 포함해서 당대 남성들의 모임에서 벌어지는 동성애 관계를 암시적으로 하이드에게 투영시키고 있다. 쇼월터는 지킬이 하이드라는 존재에 몰입하면서 그를 자기 욕망의 대상이자 그 욕망의 행동 주체로 삼는 것은 “19세기 후반 중상류 계층 남성들이 노동자 계층의 남성들을 이상적인 동성애 상대로 여기는 성애화”(111)를 반영한다고 해석한다.

패트릭 브랜트링거(Patrick Brantlinger)는 스티븐슨의 소설을 사회 계급 차이와 문화 향유 방식 차이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그에 따르면, 이 작품은 빅토리아 시대 후기의 대중문화가 지적이며 도덕적인 고급문화의 전통과 유산을 위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근심을 무의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하이드는 19세기 말 영국 사회의 문화적 하위층이 즐겼던 범죄 및 자극적 소재를 다룬 소설의 인기를 상징하고 전통적 고급문화를 위협하는 대상으로 비유되고, 지킬은 그러한 “대중과 대중의 문해력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불안”(Brantlinger 180)을 대표한다.

이처럼 계급, 성, 문화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최근 비평의 관점은 지킬과 하이드의 관계를 진보적 문명/미개적 원시성, 이성애/동성애, 고급문화/대중문화의 갈등과 대립 상황으로 상정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19세기 후반 빅토리아 시대 말기³⁾에 들어 사회, 문화, 정치, 성의 영역에서 비천하고 비정상적이며 하위부류에 속한 것들이라고 억압받았던 것들이 우월하고 정상적이며 전통의 가치로 여겨졌던 덕목들을 위협하고 그 근간을 와해시킬 것이라는 불안과 공포를 이 소설은 하이드의 출현과 지킬로 대표되는 상류층 남성의 불안을 통해 극

2) 윌리엄 비더(William Veeder)에 따르면, 영어 단어 ‘queer’가 일반적 속어로서 ‘남성 동성애자’(male homosexual)를 의미하게 된 것은 1900년대 초반이다 (“Children of the Night” 159).

3) ‘세기말’에 해당하는 프랑스어 “*fin de siècle*”로 표현되는 후기 빅토리아 시대는 낙관론과 비관론, 혁신과 퇴폐, 진보와 불안이 혼재된 시기이다.

적으로 재현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이러한 기존 비평가들의 시각은 세기말의 시대적 변화에 따른 가치의 재평가에서 비롯된 이데올로기의 충돌 그리고 그에 대한 심리적 반응을 지킬과 하이드라는 두 대표 인물에 지나치게 국한되고 있다.

본 논문은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을 부르주아 남성 전문가들의 도덕적 가치 수호의 의지를 주제로 삼아 논의한다. 만일 기존 비평가들의 해석 방식을 따른다면, 지킬은 전통적 가치의 수호자로서 “존경심, 과묵함, 예의, 자기 검열”(Arata 242)을 체화한 부르주아 전문 직업인으로 평가되는 반면, 하이드는 이러한 가치와 의무감에서 탈피해서, 자유를 만끽하는 파괴적 욕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이해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이러한 두 상반된 가치의 대립 양상에만 국한하는 해석의 틀에서 벗어나서, 지킬을 하이드라는 대리 자아를 통해서 부정적 방식으로 전통의 도덕 가치에 대해 거부하고 도전하면서 회멸을 느끼는 파괴적 자아로 해석한다. 동시에 그를 욕망에 따른 일탈적 행위가 불러일으킨 사회적 심판과 처벌에 대해 두려워하고 죄책감을 느끼는 양심적 자아로 파악하고자 한다. 지킬이 갖는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은 사회와 관습이 부르주아 지식인인 그에게 부과하는 규범적 이데올로기가 작동한 결과물이다. 동시에 억압적 이데올로기의 작동은 하이드의 파괴적 일탈이 지킬에게 부여하는 자유의 회멸을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동인이기도 하다. 지킬은 하이드로 변모한 후 폭력적이고 비도덕적 행동을 통해 규범이 가하는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을 느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구실을 모색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행위에 대한 죄책감과 참회 등의 이중적이며 양가적 감정을 갖게 된다. 그는 결국 스스로 죽음을 택하기 전에 고백적 진술서의 형식을 이용해 가브리엘 존 어터슨(Gabriel John Utterson) 변호사에게 모든 사건의 전모를 밝히고 그를 유산 상속인으로 지정한다. 기존 비평의 중심 논의 대상이 지킬과 하이드였다면, 필자는 어터슨을 지킬이 수호하려 했던 가치를 이해하고 긍정하며 옹호할 대리 주체로 평가하고자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이 어터슨을 자기변호의 대리자로 선택한 주된 이유는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사회 계급적 차원의 동질성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도덕적 가치를 추종하는

면에서도 밀접한 유대감을 형성했다는 점을 지적할 것이다. 빅토리아 시대 후기의 부르주아 남성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연대는 그들의 의식의 이성적 판단과 내적 욕망의 분출 욕구 간의 갈등 양상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 전자에 기반한 도덕적 행동 주체로서 그들을 자리매김하게 만드는 사회 계급적 이데올로기에 근간하고 있음을 강조할 것이다.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는 『성의 역사』(*The History of Sexuality*) 제1권에서 진실의 생산에는 철저하게 “권력관계”(relations of power)(60)가 내재해 있으며, 고백은 이러한 권력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예라고 주장한다.

고백은 말하는 주체가 진술하는 주체이기도 한 담론의 의례이다. 그것이 또한 권력관계 속에서 전개되는 의례인 이유는 단순한 대담자로서가 아니라 고백을 요구하고 규정하며 평가하면서, 판단, 처벌, 용서, 위로, 화해를 위해서 개입하는 권력의 존재(또는 가상의 존재) 없이는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백은 진리가 공식화되기 위해 극복해야 했던 장애물과 저항으로 인해 확증되는 의례이다. 마지막으로 고백은 외적 결과와 무관하게 표현된 그 자체로 표현한 자에게 내재적 변화를 일으켜, 고백한 자에게 면죄부를 주고, 그를 구원하고 정화하며, 그가 잘못된 것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해방하고 구원을 약속하는 의례이다.

The confession is a ritual of discourse in which the speaking subject is also the subject of the statement; it is also a ritual that unfolds within a power relationship, for one does not confess without the presence (or virtual presence) of a partner who is not simply the interlocutor but the authority who requires the confession, prescribes and appreciates it, and intervenes in order to judge, punish, forgive, console, and reconcile; a ritual in which the truth is corroborated by the obstacles and resistances it has had to surmount in order to be formulated; and finally, a ritual in which the expression alone, independently of its external consequences, produces intrinsic modifications in the person who articulates it: it

exonerates, redeems, and purifies him; it unburdens him of his wrongs, liberates him, and promises him salvation. (*History* 61-62)

푸코가 파악한 권력관계가 내재 된 진실의 형태로서의 고백은 지킬 박사가 어터슨에게 남긴 최후 진술에 적용될 수 있다. 지킬 박사의 진술문은 자기 고백의 서사이자 어터슨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유서라고 할 수 있다. 어터슨은 박사의 서사를 접하는 독자이자 대담자의 역할을 한다. 서사의 수용적 측면에서 보면, 어터슨은 지킬의 이야기를 판단하는 권위를 지닌 해석의 주체이다. 지킬이 어터슨에게 도달한 고백의 글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바라고자 했는가의 문제, 지킬 고백의 진실성 문제와 더불어 박사가 알고 있는 변호사 어터슨의 특성과 성격을 통해 그는 자신의 고백이 변호사에게 어떻게 평가될 것이고 추후 사회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 짐작했을까의 문제는 당대 부르주아 전문직 신사 계급을 지배했던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작동과 연계해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부르주아 남성 전문가 집단의 이데올로기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은 중상류 계층에 속하는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들이다. 지킬 박사, 어터슨 변호사, 의사인 헤이스티 래니언 박사(Dr. Hastie Lanyon)는 오랜 기간 우정을 나눈 친구이자 친목을 도모한 남성 신사 사교 집단의 일원이다. 특히 지킬 박사는 “의학 박사, 민법학 박사, 법률학 박사, 왕립학회 회원”(10)⁴⁾이라는 전문인으로서 다양한 직함을 가지고 있다. 제임스 엘리 애덤스(James Eli Adams)에 따르면, 빅토리아 시대에 남성 작가를 포함해서 “전문직 남성”(professional man)은 편협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타인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4) Robert Louis Stevenson.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2nd ed. (New York: W. W. Norton, 2021). 이후 작품에서의 인용은 괄호 안에 쪽수로만 표기한다.

설득력이나 타인을 매료시킬 수 있는 자기 재현의 능력”(6)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들은 무엇보다 자신들을 외적 호화로움이나 물질적 풍요로움을 가진 자로서가 아닌, 자기 수양과 절제되고 금욕적인 삶을 사는 “신사”(gentleman)로 인식했다. 산업 자본주의의 발달과 더불어 인간관계가 소위 ‘금전적 연계’(cash nexus)로 치닫는 현상과 자본에 의해 계급적 이동이 과거보다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자신들을 ‘신사’라 칭함으로써, 속물근성에 젖어 있는 다른 부르주아 남성 집단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려 했다. 그들은 엄격한 도덕성과 내적 가치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사회적 계급 이동과 신사라는 명칭에 함축된 특권을 효율적으로 규제”(Adams 6)하고 그들의 고유한 자기 재현 방식을 구축했다.

신사가 갖추어야 할 도덕적이며 내적 덕목에 대한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는 남성들이 갖추어야 할 “남자다움”(manliness)을 주제로 삼은 행동 지침서가 출판되었는데, 그중에서 존 브룩스(John Brookes)의 『남자다움과 문화』(*Manliness and Culture*)(1878)는 자기 수양의 필요성을 주요 주제로 다룬다. 브룩스에 따르면 남자다움을 이루기 위해서 남성의 육체적, 지적, 도덕적 영역은 모두 마음 혹은 영혼에 의해 지배되어야 하며, 이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한다.

남자라는 단어의 최고 뜻은 힘, 활력, 관대함을 지닌 성인 남성을 의미한다. 품위, 용맹, 순수함, 충실함, 유쾌함, 관대함과 같은 남성의 특성이 남자다움을 구성한다 [...] 남자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남자다움, 남성성, 힘, 용기, 능력, 우수성, 미덕이다 [...] 이제 “남자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개방성과 용기. 정직한 마음으로 해야 할 말과 행동에 대한 신념을 영웅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남자다움이다.

The word *man* in its best sense means a male adult, having the sense of strength, vigour, magnanimity. The best qualities of a man—such as dignity, valour, purity, fidelity, cheerfulness, magnanimity—constitute *manliness* [T]he signification of this word [man] was manliness,

manhood, strength, courage, capacity, excellence, virtue And now may be answered the question—“What is Manliness?” Openness and bravery. Carrying out heroically convictions of what ought to be said and done with rectitude of spirit, is manliness. (Brookes 12)

브룩스는 “진실하고, 용감하며, 지적이고, 고결한”(12) 남성이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특권이라고 말하며, 윌리엄 새커리(William Thackeray)가 규정한 신사에 대한 정의를 인용하면서 “정직하고, 온화하고, 관대하고, 용감하며, 지혜로운”(Brookes 12) 신사의 특성이 남자다움의 본질과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남자다움과 신사의 개념을 동질적으로 파악하면서 자기 수양을 통한 정신적이며 도덕적 가치를 존중한 브룩스의 지침은 정신과 육체를 분리해서 정신에 우월한 가치를 부여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그는 육체를 정신과 영혼을 신성하게 보호하는 곳으로 “무한한 것의 성전”(the Temple of the Infinite)(14)이라 칭하며 육체를 존중하고 영혼과 일체를 이루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작가 스티븐슨 역시 신사의 덕목에 대한 브룩스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자기 수양의 측면을 강조한다. 작가는 「신사」(“Gentleman”)라는 제목의 수필에서 신사는 “품위있게 행동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재인용 Norton 137)⁵⁾고 강조하면서 인간이 이룩한 문명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능적 욕망을 억압하고 다스림으로써 이룩된 것이고, 인간의 원초적 욕망을 자유라고 표현한다면 문명의 발전은 곧 “자유 상실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재인용 Norton 137)고 주장한다.⁶⁾

스티븐슨과 브룩스 모두 품위와 자기 절제를 신사의 주요 덕목으로 판단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되지만, 그들의 차이점은 작가 스티븐슨은

5) 이 소설의 ‘두 번째 노턴 비평 판’(second Norton critical edition)에 수록된 것을 참조하고 이후로는 괄호 안에 재인용 Norton 쪽수로 표기한다.

6) 스티븐슨이 문명에 의한 개인 ‘자유 상실’이라고 표현한 대목은 1930년도에 출판된 지그문트 프로이트(Sigmund Freud)의 『문명과 그 불만』(*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에서 “행복의 상실”(97)에 상응하는 어구라고 할 수 있다. 프로이트가 이 저서를 통해 밝히려 했던 것은 “문명이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책감이고 문명의 진보를 통해서 우리가 치르는 대가는 죄책감의 고조로 인한 행복의 상실”(97)이다.

소설이라는 허구적 서사 방식을 통해서 신사의 덕목을 우의적으로 강조한다는 것이다. 스티븐슨은 ‘우화’(allegory)의 형식을 통해서 빅토리아 시대의 남자다움과 신사에 대한 사회적 이데올로기 담론을 간접적으로 독자에게 전달한다.

사실 이 소설의 최초 원고의 내용은 단순한 공포 이야기였지만, 작가가 아내 패니 스티븐슨(Fanny Stevenson)에게 원고를 보여준 후 그녀로부터 받은 비평, 즉 단순한 이야기 형태가 아니라 사실상 “우화”(Brantlinger 168)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작가가 받아들여 초판 원고는 불에 태워버리고 이야기를 우화적 관점에서 다시 쓰게 되었다. 브랜틀링거는 그 결과물이 “겉으로 보기에 선한 외적 자아인 지킬과 악한 내적 자아인 하이드 사이에서 벌어진 상호 반대되는 힘의 투쟁”(168)을 다룬 도덕적 우화라고 주장한다. 물론 지킬과 하이드 사이의 상반되고 대조되는 이미지와 행동 특성을 통해서 도덕과 타락, 선과 악의 대립과 갈등의 양상으로 이 작품을 파악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작품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사회가 이상적으로 여긴 남자다움과 신사의 덕목이라는 이데올로기와 영혼의 순수함과 자기수양을 통한 ‘자기 포기’(self-renunciation)의 종교적 교리의 권력관계가 지배하는 ‘정치적 우화’(political allegory)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은 『정치적 무의식』(*The Political Unconscious*)에서 정치적 우화의 주요 특성은 독자가 개별 텍스트라고 간주했던 것이 사실 본질적으로는 집단 또는 계급의 담론 속에 존재하는 발화이고, 이를 독자가 깨닫게 되는 순간 새로운 시각과 판단의 지평을 맞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정치적 우화는 “집단 주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때로는 억압된 원형의 서사 또는 가장 주된 환상,” 즉 이데올로기(Jameson 80)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독자를 단순한 이야기를 감상하는 첫 번째 지평에서 사회 계급적 담론이 내포된 담화를 해석하는 두 번째 지평의 경계로 이동시킨다.

3. 의무의 해제와 의무의 재봉인: 하이드와 지킬

『빅토리아 시대 소설 속 억압』(*Repression in Victorian Fiction*)에서 존 쿠치치(John Kucich)는 소설 속 억압된 주체의 개성이 돋보이는 이유는 주체가 사회의 도덕 규칙에 맹목적으로 준수해서가 아니라, “빅토리아 시대 문화에 존재하는 억압이 깊은 내면에서 주체성을 이루게 하는 원천을 알려주는 신호이며, 욕망을 스스로 더욱 반영하는 힘이고, 대체로 내면의 우월한 성적 욕망을 나타내는 신호”(269-70)로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의사로서 그리고 법의 전문가로서 지킬은 남자다움을 유지하고 신사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사회적 존경의 대상으로서 실천해야 할 의무감에 사로잡힌 존재다. 이 작품에서 도덕적 규칙과 관습의 작동은 존경받는 신사로서의 지킬의 행동으로 인해 입증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드라는 원초적 욕망의 존재이자 규범과 질서의 파괴자로서 합리적 이성의 근거를 위협하는 그 악마적 존재에 의해 가능해진다. 법의 제약과 그 실효성은 법이 억압하고 처벌해야 할 대상의 존재가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 입증된다. 지킬은 19세기 후반 영국 사회에서 사회 계급적, 도덕적, 지적 신사의 위상을 대표하는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이고, 이를 환유적으로 입증하듯이 그의 손은 “크고, 단단하고, 희며, 매력적”(51)이다. 반면에 하이드의 손은 “야위고, 힘줄이 돋보이고, 손가락 마디가 튀어나와 있으며, 창백하면서 칙칙해 보이며, 거무스름한 털로 덮여있다”(51)는 묘사에서 강조되고 있듯이 문명화되기 이전 혹은 완전한 진화 이전의 야생의 원초적 상태에 있는 존재를 암시한다. 그러한 존재는 문명의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할 힘이자, 현재 그의 안정된 사회적 위상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공포로 지킬에게 다가온다.

지킬은 어터슨에게 남긴 진술문에서 자신이 하이드로 최초 변신하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에 관해 묘사한다. 그는 이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과정에서 느끼는 산고에 비유하지만 동시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쾌락을 느끼는 양가적 감정으로 표현한다.

뼈가 갈리는 듯한 고통, 치명적인 메스꺼움, 탄생 또는 죽음의 순간에 견딜

수 없는 영혼의 공포라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이어졌다 [...] 내 감각에는 이상하고, 형언할 수 없이 새롭고, 참신함에서 비롯된 믿을 수 없이 달콤한 무엇인가가 존재했다. 나는 몸이 더 젊고, 더 가볍고, 더 행복하다고 느꼈다. 내 안에서 자극적인 무모함, 공상 속에서 물레방아를 돌리는 물줄기처럼 질주하는 무질서한 관능적 이미지의 흐름, 의무의 굴레에서 해제, 알 수는 없지만 순수하지 않은 영혼의 자유를 의식했다.

The most racking pangs succeeded: a grinding in the bones, deadly nausea, and a horror of the spirit that cannot be exceeded at the hour of birth or death There was something strange in my sensations, something indescribably new and, from its novelty, incredibly sweet. I felt younger, lighter, happier in body; within I was conscious of a heady recklessness, a current of disordered sensual images running like a mill race in my fancy, a solution of the bonds of obligation, an unknown but not an innocent freedom of the soul. (Norton 47)

위의 대목에서 특히 ‘의무의 굴레에서 해제’(a solution of the bonds of obligation)라는 표현은 세 가지 차원에서 복합적이며 함축적인 의미를 전달한다. 첫 번째로 지킬이 하이드로 변신하는 것은 지킬의 내적 욕망, 그 욕망은 도덕과 질서가 작동하고 개인을 통제하는 사회와 문명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이다. 남자다움이나 이상적 신사의 이미지를 제거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독립된 주체로서 존재하고자 하는 욕망이 실현되는 순간이다. 이 순간 하이드의 존재는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가 『공포의 힘』(*Powers of Horror*)에서 말한 “아브젝시옹”(abjection)⁷⁾을 불러일으키는 대상이다. 아브젝시옹은 “급격하게 배제되고 고정된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 곳으로 이끄는 버려진 대상”(Kristeva 2)이 가져다주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논리적 언어의 의미 작용은 대상을 기호로 규정하고 제한하여 그 대상의 고유성, 변화 가능성을 단순화해서 그것을 우리의 의식이 파악할 수 있

7) “아브젝시옹”은 우리말로 비체, 혐오감, 공포 감정 등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그 자체에 함축된 의미의 다양성을 특정한 우리말 한 단어로 규정하지 않기 위해 ‘아브젝시옹’으로 표기한다.

는 영역 안으로 포섭한다. 그러나 아브젝시옹의 특징은 “이미 형성된 주체와 대상, 즉 세계에 의존하는 상징적 혹은 의도적 경험의 특징인 일관되고 안정되어 보이는 의미를 거부”(Keltner 44)해서 법과 규범으로 제약할 수 없는 치외법권적 영역, 세상의 경계를 넘어서 존재한다. 아브젝시옹은 이성적, 도덕적, 정상적 주체가 보기에는 추하며, 역겹고, 인간의 언어로는 확실히 규정하기 힘든 기이한 존재이기에 문명 속에 안정을 느끼고 법과 관습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느끼게 한다. 하이드를 직접 보고자 그의 집이 위치한 소호(Soho)의 거리에서 기다린 어터슨은 하이드를 대면한 후 그에게서 “알 수 없는 역겨움, 혐오와 공포”(15)를 느낀다. 아브젝시옹으로서의 하이드는 경건한 마음과 자기 절제에 익숙한 남자다움을 체화한 신사인 어터슨에게는 마치 “얼굴에 새겨진 사탄의 서명”(15)이 각인된 존재이다.

외적 추함, 역겨움, 혐오, 공포 등의 감정은 고딕 소설에서 타자로 묘사된 존재에 대한 권위적 자아의 가치판단과 동반되어 표출된다.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Frankenstein*)에 등장하는 괴물 역시 이러한 감정을 전달해 주는 타자로 묘사되었지만, 그 괴물은 인간의 언어를 습득하고 자기의 생각을 서사의 형태로 구성해서 인간과 유대를 형성하기를 갈망한다. 그러나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하이드는 피터 개럿(Peter Garrett)이 지적한 대로, 침묵한 채 지킬의 의식과 서사를 통해서나 다른 신사들의 비유적 표현으로 묘사될 뿐이다. 따라서 지킬의 하이드로의 변신은 도덕적 의무와 압박에서 해제된 것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설명해야 할 의무나 동기를 제거해 버린”(Garrett 121)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작품 속 다른 인물들과 독자들은 침묵하고 이러한 하이드의 정체성 및 행위의 동기 등에 대해서 해독해야 하는 책무를 갖게 된다. 하이드는 소설 텍스트 속에 수수께끼와 같은 암호로 존재하는 또 다른 텍스트로서 존재한다.

두 번째로 ‘의무의 굴레에서 해제’된다는 것에 함축된 의미는 스티븐슨의 소설 창작에 관여한 초자연적 존재를 연상하게끔 한다. 작가는 「꿈에 관한 장」(“A Chapter on Dreams”)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의 소설 쓰기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브라우니”(Brownies)에 대해 언급한다. 브라우니는 보이지 않는 환상적 존재로서 작가로 하여금 함

리적이고 논리적인 데카르트적 의식에 얽매이지 않고 창의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유로운 글쓰기를 하도록 돕는다. 스티븐슨의 출판된 소설 전부는 그가 “뒤쪽 다락방에 가두어 둔 어떤 브라우니, 어떤 초자연적 조력자, 어떤 보이지 않는 협업자의 한 손에 의해 만들어진 산물”(제인 용 Norton 82)임을 고백한다.⁸⁾ 앞서 지킬과 하이드에 관한 소설의 탄생 배경을 언급하면서 작가의 아내 패니 스티븐슨의 최초 원고본에 대한 지적이 이 소설을 선과 악의 갈등에 관한 우화로 탈바꿈하게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녀가 남편 스티븐슨의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조력자이자 협업자, 즉 그의 브라우니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브라우니의 특징이 탈규범적이며 가치판단의 틀을 벗어나서 무의식적 글쓰기를 가능하게 하는 상상의 존재로 묘사된다면, 스티븐슨의 아내가 남편에게 소설을 도덕적 우화의 틀에 맞게 수정하라고 권고한 목소리는 작품에 대한 검열의 작동 혹은 당대 독자들의 기호와 반응 등 소설의 시장성을 고려한 전략적 조치로서 브라우니의 자유를 억압하는 힘으로 작용한다.⁹⁾

세 번째로 ‘의무의 굴레에서 해제’된다는 의미에는 중의성과 더불어 상호 모순되는 양가성을 포함한다. 비더의 지적대로, ‘해제’(solution)는 수중 상태에 비유되는 무의식적 차원에서 “용해”(dissolution)라는 뜻과 함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방종한 자”(dissolute)를 뜻한다(“Children” 121). 하이드가 어떤 인물인지 확정하거나 정의할 수 없는 의미의 불확정성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규범과 법의 지배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작품에서 어터슨의 먼 친척인 리처드 엔필드 씨(Mr. Richard Enfield)는 하

-
- 8) 스티븐슨의 작품 창작에 있어서 꿈의 작용, 의식의 분열, 다원적 자아의 문제를 당대의 심리학 논의의 맥락, 특히 작가와 마이어스(Myers) 형제, 즉 A. T. 마이어스와 F. W. H. 마이어스의 심리학적 관점과의 연계로 파악한 연구로는 질 매터스(Jill Matus)의 『빅토리아 시대 소설 속 충격, 기억, 그리고 무의식』(*Shock, Memory and the Unconscious in Victorian Fiction*)이 있으며, 스티븐슨에 관한 논의는 제5 장의 160면부터 182면에 해당한다.
- 9) 윌리엄 비더(William Veeder)는 패니가 당대 아동작가로 알려진 남편 스티븐슨이 작품 속에 성적 내용을 포함할 경우, 그의 “공적 이미지가 손상될 것”(“Texts in Question” 10)을 우려했을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이 소설은 실제로 작가 스티븐슨에게 명성과 부를 안겨주었다(Brantlinger 176).

이드를 직접 보고 느꼈던 인상에 대해 어터슨에게 이야기하면서 하이드가 매우 혐오스럽고 어딘가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에 대해 “도무지 뭐라고 명명할 수 없으며,” “묘사할 수 없다”(9)는 점을 강조한다. 어터슨 역시 하이드를 보고 나서 그에게는 “의미심장한 무엇인가가 더” 존재하는 데 정확히 이름을 붙일 수는 없지만, “인간적이지 않은,” “마치 선사시대의 혈거인 같은 것”(15)¹⁰⁾이라고 증언한다. 언어와 법과 같은 상징계 질서가 지배하는 문명사회의 삶에 익숙한 부르주아 신사와 전문가들은 하이드를 규정하고 표현할 수 있는 확실한 언어적 기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혼란에 빠진다.¹¹⁾ 그들은 하이드라는 대상의 본질을 밝혀줄 수 있는 초월적 기의를 찾으려 하지만, 그들이 의존할 수 있는 언어의 기표는 문명사회의 지식체계가 설정한 문명/비문명, 선/악, 이성/광기, 정상/비정상, 온전/기형의 이분법적 대립과 위계 서열에 따르는 ‘인류학적’(anthropological) 지식, 신학적(theological) 개념, 병리학적(pathological) 진단에 기반한 언어모델에서만 발견될 뿐이다.

지킬이 하이드로의 변화에서 느끼는 의무로부터의 ‘해제’에는 무의식적 욕망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행위와 상반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 지킬을 포함해서 이 작품에 등장하는 변호사와 의사와 같은 전문직 종사자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논리적 사고의 연쇄를 가능하게 하는 “의식의 대뇌 활동”(conscious cerebration)(“Children” 121)을 뜻한다. 하이드로 변신하는 과정에서 지킬이 느낀 특징을 요약해 주는 ‘의무의 굴레에서 해제’라는 어구는 이처럼 다차원적이고 중층적이며 상호 모순적인 의미를 포함한다. 이는 질서와 관습의 체계 속에 정립된 주체로서의 지킬과 질서의 파괴자이자 반사회적 존재로 정립에 반하는 하이드의 상호관계를 설명해 주면서 동시에 그러한 두 자아를 자기반

10) 선사시대의 혈거인, 즉 동굴 거주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 “troglodytic”은 문명사회의 어터슨이 하이드를 인류 진화학적 관점에서 ‘원시적 회귀’를 연상하게 만드는 낯설고 기이하며 공포스러운 존재로 인지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11) 언어 기호를 통한 규정 및 이해가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하이드는 자크 라캉(Jacques Lacan)이 말한 ‘실재계’(the real)와 유사하다. 실재계는 상징계의 특징인 차별화된 기표의 작용을 통한 의미 작용을 불가능하게 한다. 실재계는 “상징화를 절대적으로 거부하는 것”(Seminar 66)이다.

성적이고 의식적 차원에서 종합해서 판단을 내리는 고백적 자아 혹은 변증법적 자아를 성립하게 하는 사건이다. 이 소설의 마지막 장의 제목인 「헨리 지킬의 사건 진술서 전문」(“Henry Jekyll’s Full Statement of the Case”)은 여러 자아 사이의 투쟁을 고백적 서사의 형태로 구성한 것이다. 그 서사는 자신이 죽은 후 어터슨을 포함한 사회 구성원들의 그에 대한 평가, 즉 부르주아 신사였지만, 내면에 일탈적 욕망을 꿈꾸며 실제로 이를 구현한 지킬/하이드로 존재했던 인물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텍스트 이면에 징후의 형태로 존재하는 의식적 대뇌 활동의 산물이다.

지킬은 먼저 사회적 명성을 지닌 부르주아 신사로서 자신은 “선천적으로 근면하고, 현명하고 선한 동료들을 존경”(45)했음을 밝힌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장 큰 결점이 “쾌락을 탐닉”(45)한다는 것이었다고 고백한다. 비록 그가 어떠한 쾌락에 빠져 있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¹²⁾ 은밀한 쾌락 추구의 기질과 “대중 앞에서 근엄한 표정을 하고 머리를 들고 오만한 자세를 취하고자 하는 욕망”(45)을 양립시키기 힘들었다고 고백한다. 그는 자신의 이중성에 대해 인지하면서, 인간을 “다양하고 조화롭지 않으며 독립적인 존재들의 단순한 조직체”(a mere polity of multifarious, incongruous and independent denizens)(46)라고 정의한다. 지킬적 자아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남자다움의 덕목을 체화한 신사로,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로, 상류계급 사교 모임의 일원으로 규정되었다면, 하이드의 자아는 지킬의 자아와는 반대되는 양상으로 묘사되고 폭력성과 잔혹성을 표출하는 악마적 존재로 그려진다. 소설 속 하이드의 물리적 폭력은 성냥 파는 여인의 얼굴을 가격한다거나 길에서 부딪친 어린 소녀를 발로 밟는 행위와 더불어 댄버스 커류 경(Sir Danvers Carew)을 거리에서 지팡이로 잔혹하게 살해하는 행위에서 극에 달한다.

12) 블라디미르 나보코프(Vladimir Nabokov)는 지킬이 은밀히 밤에 도심을 배회한 것은 빅토리아 시대 런던에서 일반화된 “동성애를 실천”(194)한 것이라 주장한다. 또한 쇼윌터에 따르면, 스티븐슨은 낮과 밤의 생활 모습이 극명한 차이를 보인 “19세기 말 이중의 삶이라는 상의 수상자”(106)라는 칭호를 붙여줄 작가이다. 그는 밤에 주로 환락가를 방문했으며, 특히 남성 작가들과 남성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고, “육체적으로 다른 남성들을 매료시킬 만했다”(106).

커류 경을 죽인 후에 집으로 돌아와 하이드에서 지킬로 변한 박사는 살인자는 하이드이기 때문에 지킬 자신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것이라 믿고 안도한다. 하이드로서 지킬은 범법자이자 살인자이지만, 사회에 존경받는 의사이자 박사로서의 지킬은 하이드에게 범죄자의 신분을 은닉할 수 있는 “도피의 도시”가 되고, 형벌이라는 “교수대의 공포”(54)로부터 그를 지탱하고 보호해 줄 안식처의 역할을 한다. 이처럼 내면의 충동 및 욕망에 따라 악행을 저지른 후에 고결하고 도덕적인 지킬의 모습으로 위장한 채 죄를 은닉하려는 박사에게 이 작품의 출판 당시뿐만 아니라 최근의 비평적 시각은 그가 기만적 삶을 즐기는 위선자라고 평가한다. 1886년 『더블린 리뷰』(*The Dublin Review*)에 실린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에 대한 논평에 따르면, 지킬은 “외적인 예의와 은밀한 방종을 결합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본래 위선의 삶을 살게 된 사람”(422)이며, 이 소설은 선한 본성이 악에 의해 자행된 범행을 관대하게 여기고 점차 타락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 지킬은 결국 선함을 회복할 수 없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지는 상황, 즉 “의지가 격정의 노예가 되는 것을 보여주는 우화”(423) 속 인물이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심지어 이 소설의 저자 스티븐슨도 존 폴 보콕(John Paul Boccock)에게 1887년 11월에 보낸 편지에서 지킬 박사를 “위선자”로 언급하고 박사의 위선이 “잔혹함과 사악함의 근원이자 이기심과 비겁함의 근원인 짐승과 같은 하이드”(Maixner 231)를 드러내게 되었다고 밝힌다. 멜리사 간츠(Melissa Ganz)는 범죄자에 대한 법적 심판과 처벌에 관한 논쟁¹³⁾을 소개하며 지킬의 위선적 행동에 대해 비판한다. 그녀는 지킬에게 “거부할 수 없는 충동”(392) 같은 정신병적 증세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주장은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범법자의 무책임하고도 미리 준비한 변

13) 예를 들어, 헨리 모즐리(Henry Maudsley)는 비도덕적으로 행동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정신병자들은 “광기를 제어할 통제력도 없고, 대부분 타고난 정신병적 성질에 지배되기”(Ganz 372) 때문에, 그들을 법적 처벌 할 경우에 정신 상태가 고려된 배려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반면 생리학자인 윌리엄 카펜터(William Carpenter)는 삶에서 좋은 습관을 형성하고 “의지”(Ganz 375)와 “자기 통제”(Ganz 376)를 통해서 광기와 폭력적 충동을 억제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정신병자들에게 면죄부 대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392)에 속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지킬을 단순히 비양심적 위선자라고 비난하기보다는 왜 그가 자기의 신분과 명성을 유지하려 했는지 고려해 보고, 그를 마치 위선자처럼 보이게 만든 요인으로 사회 속 여러 힘의 작용과 영향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지킬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린 시절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었던 모습을 떠올리고 그 후 “전문 직업인으로서 고단한 자기 부정의 인생”(54)을 살아왔음을 고백한다. 하이드로 변신 후 일탈과 본능에 따라 행동했지만, 다시 제약된 삶과 절제와 금욕의 자기 “포기”(54)의 삶으로 귀환한 자신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 아버지의 손을 잡은 어린 지킬의 모습은 소위 ‘아버지의 이름’(the Name of the Father)¹⁴⁾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가부장적 권위가 지배하는 상징계로의 진입을 뜻한다. 지킬은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라는 사회 계급적 신분을 통해 권위를 인정받고 삶의 안정성을 획득하지만, 동시에 사회가 요구하는 엄격한 자기 관리 및 도덕적 행실, 규범의 준수를 이행해야 했다. 남자다움과 신사의 이데올로기가 부과하는 의무와 부담을 벗어버리고 일탈하여 원시적 폭력성을 표출하는 하이드는 상징계 질서로 편입되어 법에 복종하기를 거부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상징계의 심판과 처벌에 대해 걱정한다. 그의 일탈행위는 사회와 법의 굴레로부터 완전히 ‘해제’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하이드는 마치 “유인원과 같은 속임수”(58)를 써서 지킬의 책에 신성모독적 발언을 지킬의 필체로 낙서해 놓았고, 지킬 아버지의 초상화를 파괴했다. 이는 종교적 권위와 가부장적 권위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유인원’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원시 상태로의 회귀를 갈망하면서 인간 문명을 파괴하려는 욕망의 표현이다. 비록 이런 행위를 통해 사회의 제도 및 관습이 그에게 가하는 의무와 억압에 저항하려고 했지만, 그는 죄의 대가는 처벌이라는 사회적 원칙과 합의를 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처벌 이전에 죄책감이라는 자신의 양심

14) 라캉이 『정신병』(*The Psychoses*)(1955-1956)에서 소개한 용어로, 언어 체계, 법과, 사회 규범으로 대표되는 상징계 질서(symbolic order)를 의미하며, 아이는 성장 과정에서 그러한 상징계로의 진입을 통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Oedipus complex)로부터 벗어난다. ‘아버지의 이름의 부재’ 상황은 개인이 사회 질서에 완전히 통합되지 못한 이유로 인해 망상을 동반한 정신병을 일으킬 수 있다(*The Political* 193).

을 무력화할 수 없었다. 하이드가 질책과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지킬을 이용하고, 지킬은 자신의 사회적 평판을 유지하면서 하이드로 위장한 채 대리 쾌락을 즐긴 것을 고려한다면, 프레드 보팅(Fred Botting)의 지적처럼, “법이 없다면, 지킬은 하이드에게 의미 없는 존재”(134)였을 것이다. 억압적 법의 작동은 욕망의 대상이 존재함으로 심판과 처벌의 실효성을 성립시킬 수 있고, 하이드라는 원초적 자유와 욕망의 존재는 지킬이라는 문명적이고 신사적이며 준법 의식으로 무장한 주체로 인해 자신의 반사회적 행동을 보호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의 규범과 법에 대항하면서 그것을 교묘히 이용한 지킬과 하이드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는 단절되게 된다. 문명사회에 순응한 자기 반성적이고 고백적 서사를 구사하는 지킬이 갖게 된 죄의식은 하이드로 대표되는 자유를 박탈해야 하고 감각적 행복 혹은 쾌락을 포기해야 한다. 그리고 지킬은 “눈보다 더 가깝고, 배우자보다 더 가깝게 맺어져 있는”(58) 하이드와의 관계를 단절하는 최후 방법은 “자살”(58)이라고 판단한다. 그는 ‘아브젝시옹’의 존재로 느껴진 하이드를 더 이상 자기 내면에 존재하는 동일한 자아로 여기지 않는다. 하이드는 지킬의 몸에서 분출된 변태적이고 도착적인 욕망을 상징하지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지킬의 자아는 이러한 하이드의 욕망을 자신에게서 분리한다. ‘아브젝시옹’을 적극적 의미에서 “버리거나”(throwing away) “쫓아내는 것”(casting off)으로 파악한 제럴드 호글(Jerrold Hogle)에 따르면, 지킬이 하이드가 대표하는 신체적 욕망을 잠시 만끽한 후, 그를 자신의 본래 본성이라고 생각한 도덕적 근엄함과 엄숙함으로부터 버리고 쫓아내야 할 “병든 인물”로 규정한다(Hogle 171). 주디스 헬버스탐(Judith Halberstam)의 지적대로, 지킬이 부르주아 권력을 대표한다면, “하이드는 부르주아 주체가 만들어냈지만, 그 주체가 거부하는 쾌락을 상징”(69)한다. 지킬은 분리의 한 가지 방식으로 하이드를 지칭하기 위해서 일인칭 대명사가 아닌 삼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그라고 나는 말한다, 나는 ‘나’라고 말할 수 없다.”(He, I say—I cannot say, I)(56). 그리고 “내 다른 자아에 대한 공포”(the horror of my other self)(57)로부터 단절하기 위해서 그의 선택은 “그 불쌍한 헨리 지킬의 인생을 끝내”(59)는 것이다.

일종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지킬의 진술서는 알렉스 클루나스(Alex Clunas)의 표현을 빌리자면, “증언의 정직성, 진실성 및 신뢰성”(188)을 나타내는 특별한 주장이자 자기 고백의 서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것은 실제로 현실의 의무와 내적 욕망 간의 갈등을 고민한 부르주아 전문 지식인이자 신사로서 지킬의 사회적 평판과 책무에 대한 자의식을 반영한 것이다. 그의 최종 진술은 전문가 지식인에게 익숙한 삶 속 도덕, 종교, 의학, 법 등의 제도가 부과하는 억압과 제약에 침윤되어 각종 이데올로기적 작용의 징후를 암묵적으로 드러내는 텍스트이다. 변신의 효력을 일으킨 약물의 성분이 “불순한”(impure)(58) 것이라 지킬이 판단했듯이, 그의 고백은 자아를 하이드라는 타자화된 자아와 동일시하면서도 “빅토리아 시대의 청교도주의”(Foucault, *History* 22) 관점에서 하이드의 욕망을 거부한 모순되고 중층 결정된 결과물이다. 또한 그것은 부르주아 신사의 행동 강령에 관한 사회적 담론이 오염시킨 우의의 텍스트이다. 지킬은 하이드에 의해 해제된 자신의 의무를 다시 봉인된 문서의 형태로 그의 친구이자 변호사 그리고 이 작품 속 남자다움과 신사의 사회적 담론의 실천가인 어터슨에게 남긴다.

4. 감시와 고백의 유대: 어터슨과 지킬

소설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은 어터슨 변호사를 빅토리아 시대의 남자다움과 신사의 덕목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에 가장 복종하고 헌신하는 인물로 묘사한다. 그는 “삶의 정상적이고 관습적인 측면을 사랑하는 사람”(11)이며 무엇보다 그는 “공상은 겸손하지 못한 것”(11)이라 생각한다. 그는 이성적 판단과 관습, 삶에서 이해할 수 있는 상식을 존중한다. 그는 일요일이면 저녁 식사 후에 “무미건조한 신학 서적”(10)을 읽고 자정이 되면 “온전한 정신으로 감사하면서”(10) 잠자리에 든다. 그는 브룩스가 규정한 “가장 남자다운 사람은 신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Brookes 12)이라는 기준에 맞게 행동하려 한다. 앞서 쿠치치의 소설 속 억압의 작용에 관한 논의를 통해 인간 개인의 내적 욕망의 강렬함을 더욱 돋보이게 만

드는 요인은 그 욕망을 억압하고 통제하려는 사회의 규범 및 법의 작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으로 어터슨의 규범적 행위, 자기 통제, 남자다움, 신사로서의 삶을 돋보이도록 만드는 것은 지킬의 내면적 욕망을 구현하는 인물로서 하이드가 저지르는 만행과 범죄이다. 지킬과 하이드의 관계는 한 개인 자아에 속하는 상호 대립하면서 동시에 상대의 본질적 의미를 성립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또 다른 자아가 병립하는 것이었다. 어터슨과 하이드의 관계는 사회의 법과 도덕적 이상을 대표하는 어터슨이라는 규범적이고 억압적 자아가 원초적 충동과 비문명화된 욕망, 반사회적이며 탈구조적인 자유를 갈망하는 하이드라는 다른 개별 자아와 대립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다.

어터슨 변호사는 하이드와 대립된 주체로서 작품에서 타인에 대한 존경심과 배려, 신사로서의 덕목을 갖춘 당대의 부르주아 전문가 지식인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그는 “감각적 탐닉에 지나치게 빠지지 않는 존경스럽고 절제된 신사의 표본”(Danahay, 재인용 Norton 140)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지킬과 달리 자기동일성과 자아의 통일성을 갖춘 인물인 듯 보인다.

그는 자신에게 엄격했다 [...]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그럽다고 인정되었고, 때로는 악행에 연루된 영혼이 겪는 심한 압박에 대해 거의 부러움에 가까울 정도로 경이로움을 느꼈으며, 어떤 극단의 상황에서도 책망하기보다 도우려는 경향이 있었다. “나는 카인의 이단 쪽으로 이끌립니다”라고 기이하게 말하곤 했다: “나는 내 형제가 자기의 방식대로 악마에게 가도록 내버려둡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 몰락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그들이 만나는 마지막으로 평판이 좋은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사람이 되는 행운을 종종 얻게 되었다.

He was austere with himself But he had an approved tolerance for others; sometimes wondering, almost with envy, at the high pressure of spirits involved in their misdeeds; and in any extremity inclined to help rather than to reprove. “I incline to Cain’s heresy,” he used to say quaintly: “I let my brother go to the devil in his own way.” In this character, it was frequently his fortune to be the last reputable acquaintance and the

last good influence in the lives of down-going men. (5)

어터슨이 자기 수양을 엄격히 행하면서도 타인에게 관대했다는 것은 그가 브룩스의 남자다움에 대한 기준에 부합하는 인물임을 말해준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악행을 저지른 자가 겪는 심한 사회적, 법적 혹은 양심의 압박에 대해 경이로움을 느낀다는 것이다. 도덕적 삶을 사는 자신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놀라움과 함께 그러한 행위의 배경 및 동기 등에 대한 호기심을 말한다. 또한 무엇보다 도덕적 양심, 실제로 이루어질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 등이 그들을 어떤 식으로 지배할지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를 의미한다. ‘카인의 이단’과 ‘악마에게 가도록 내버려’둔다는 어터슨의 말은 범죄자의 악행에 대해 간섭을 하지 않고 그들의 삶에 대해 참견하지 않는 태도를 가리킨다. 호기심과 더불어 무관심적 비간섭을 융합하는 태도는 어터슨이 부르주아 신사로서의 사회적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는 중요한 직업적 철학이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태도 유지를 어렵게 하고 그의 안정된 자아의 세계에 균열을 가하는 존재는 바로 그의 친구이자 부르주아 전문가 신사집단의 일원인 지킬이고, 좀 더 엄밀히 말하자면 지킬의 분열된 또 다른 자아인 하이드이자 지킬의 유산을 상속할 비밀스러운 존재이다.

남성 부르주아 전문 지식인으로서 상호 유대와 친밀성을 갖고 다른 외부 계층의 사람들과는 차별된 그들만의 동질적인 신분상의 특성에 대해 자부심을 느꼈던 어터슨이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존재인 하이드가 지킬, 래니언, 어터슨의 삼인조 남성 집단의 계급적, 직업적, 사회적 동질성을 파괴하는 이질적이고 불순한 존재로 등장한다는 것에 대해 증오 섞인 거부감을 표출한다. 그의 불만과 증오를 촉발하게 한 계기는 지킬의 유언장이다. 그는 지킬 박사의 변호사로서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실종 혹은 이유 없이 부재하게 될 경우,’ 에드워드 하이드가 헨리 지킬의 권리를 즉각 승계한다”(10)고 명시된 지킬의 유언장에 대해 불만을 품는다. 그는 지킬과 오랜 기간 우정 관계를 형성했고 서로에 대해 잘 안다고 여겼음에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이드에게 유산이 상속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는다. 하이드라는 이름이 명시된 지킬의

유언장은 “변호사에게 오랜 기간 눈에 거슬렸고”(10-11) 관습적 삶을 추종하고 합리적 판단과 근거에 따라 행동하는 전문직 “변호사로서의 그를 불쾌하게 만들었고,” 그로 하여금 하이드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을 모른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기에 그를 “더욱 화내게 했다”(11). 어터슨의 불쾌감과 분노의 원인은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이름을 지닌 사람의 존재이다. 그는 어터슨과 지킬이 이룬 중상류층 남성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 집단의 공고한 유대 관계에 분열을 일으킨 존재이다. 그들 집단에서 형성된 우정은 공적 그리고 사적인 일들이 공유되고 이해의 대상이 된다. 하이드라는 존재의 침입은 어터슨을 불쾌하게 했을 뿐 아니라, 관계의 안정성을 파괴하는 불순하고 이단적인 악마와 공포스러운 유령의 출몰로 그의 꿈에 나타나 그의 상상이 하이드에 의해 지배되는 “노예화된 상태로”(12) 만든다.

어터슨은 삶을 이성에 의해서 논리적으로 투명하게 이해하고자 하는 인물이다. 하이드는 어터슨의 꿈 속에서 “아이를 짓밟는 인간의 모습을 한 엄청난 힘을 가진 존재”(12)와 지킬의 침실에 침입해 “잠자고 있는 지킬 옆에 서 있는”(12) 공포스러운 모습의 형태로 출몰해서 어터슨의 의식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그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러나 변호사는 하이드를 찾아 정체를 밝히고자 하는 적극적이고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만일 그가 하이드 씨라면 나는 씨크 씨다’라고 그는 생각했다”(“‘If he be Mr. Hyde,’ he had thought, ‘I shall be Mr. Seek’”)(13). 이 발언은 숨바꼭질(hide-and-seek)을 함축하고 있는 동음이의어를 이용한 언어유희로 하이드가 지킬과의 관계에서 숨김, 은폐, 비밀을 대표하는 존재라면, 어터슨의 행위는 그를 찾아내서 그의 비밀을 투명하게 밝히고자 갈망하는 “19세기 후반의 의학 및 과학의 시도와 매우 유사”하다(Williams 416-17). 하이드와 지킬의 관계 규명이라는 목적 혹은 진실에 도달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엔필드를 통한 제삼자의 간접 증언이 아닌, 어터슨 자신이 하이드를 직접 목격하고 그의 얼굴을 봄으로써 자기만의 재현 방식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어터슨은 푸코가 “장치”(apparatus)¹⁵⁾라고 명명한 사회의 규범적

15) 프랑스어 ‘dispositif’에 해당하는 영어 어휘로는 ‘apparatus’가 있고 이를 우리 말 ‘장치’로 풀이할 수 있다. 이는 “법, 제도, 과학 및 철학 그리고 도덕의 명제

관계 체제에 순응한다. 그리고 그는 이 장치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하이드와 같은 반사회적 인물을 감시하고 처벌하며 격리 및 순화시키는 전략적 기능에 충실하다. “하이드 씨의 실제 모습의 특징을 보고 싶은 호기심”(13)에 사로잡힌 어터슨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골목길에서 하이드를 기다린다. 그에게 하이드의 정체성을 파악하는 최고의 선택은 그를 응시하는 것으로써, “당신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14)라고 대상을 향한 권력과 지식의 욕망에 찬 주체의 호명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다. 어터슨은 하이드를 응시하고 관찰하고 더 나아가 감시와 통제의 대상으로 삼는 ‘파놉티콘’(Panopticon)¹⁶⁾의 시각을 사용하며 그에 대한 묘사로 “난쟁이 같이 왜소한,” “기형,” “신체의 변형”(15)등과 같은 병리학적 언어를 통해 비정상이라 간주하고 이를 정신적이고 영적인 차원에서 악마성과 연결시켜 그를 “더러운 영혼의 단순한 광채”이고 “얼굴에 사탄의 서명”(15)이 드러났다고 판단한다.

어터슨을 “소설의 유일한 진정한 자기 창조자”(Gaughan 195)라고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그는 하이드와 지킬에 관련된 모든 “발작적”(hysterical)¹⁷⁾ 사건과 현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책임 의식을 갖고 문제 해결과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어터슨의 의지가 가장 돋보이는 상황은 지킬의 집사 풀(Poole)이 박사의 연구실에서 나는 기이한 소리에 불길한 예감이 들어 어터슨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찾아왔을 때, 그가 풀과 함께 지킬의 집으로 가서 박사의 안전을 살피는 장면이다. 풀이 변호사에게 “저와 함께 가서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30)라고 요청하는 대목은 어터슨이 하이드의 실제 규명

등으로 구성된 이질적 집합체”로 이해된다(*Power/Knowledge* 194).

- 16) 푸코는 『감시와 처벌』(*Discipline and Punish*)에서 관찰의 기제로서 작동하는 도구로서 파놉티콘에 대해 논의하고, 그것이 인간의 행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을 갖는다고 말한다. 이러한 규제적 감시는 지식과 권력의 상호관계를 밀접하게 만드는데, “지식은 권력의 발전을 따라가면서, 표면상 권력이 행사되는 모든 곳에서 새로운 지식의 대상을 발견”한다(*Discipline* 204).
- 17) 메리온 쇼(Marion Shaw)는 스티븐슨의 이 작품이 인간 본성의 원시적 진실을 찾고자 하는 ‘발작적’ 텍스트라고 규정한다. 그러나 쇼는 하이드의 살인과 지킬의 고백에 드러나는 히스테리의 현상에 주목할 뿐, 어터슨의 역할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다(95).

을 위해 그의 얼굴을 직접 보고자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실증적이고 경험적 지식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폴의 부탁을 통해 나타내 주고 있다. 그리고 지킬의 저택에서 남녀 하인들이 난로 주변에 “마치 한 무리 양 떼처럼 뒤엉켜 서 있는”(31) 모습과 발작적으로 흐느끼는 여자 하인을 향해 “도대체 무슨 일인가? 다들 여기 모여 있는가? [...] 이러면 안되지, 보기 좋지 않군. 주인이 알면 기분 나빠할 텐데”(31)라고 말하면서 ‘발작적’ 상황을 정리하고 혼돈에 빠진 채 양 떼로 묘사된 하인들을 인도하는 목자이자 비유적 의미에서 영적 지도자처럼 그들을 용맹스럽게 통솔한다. 또한 그는 단단히 고정된 지킬의 연구실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폴에게 도끼를 가져와서 문을 내리치라고 명령한다. 그 상황에서 그는 연구실 안에 있는 지킬에게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면, 반칙을 써서라도, 자네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폭력을 써서라도 [...] 나는 자네를 보아야겠네”(36)라고 외치며, 집사에게 “문을 부숴버려, 폴!”(36)이라고 명령한다.

어터슨이 지킬을 직접 보아야겠다고 말할 때 사용한 어구, ‘반칙’(foul)은 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목적을 정당화하거나 행위의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합목적적 사고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가 폴에게 한 명령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행동은 의지의 선행에 근거한 실천 이성의 작동에 기반한다. 그의 명령은 임마누엘 칸트(Immanuel Kant)가 말한 “선한 의지를 만들어야 하는” 인간의 “실천적 기능으로서의 이성”(12)의 작동을 반영한다. 비록 인간의 이성이 우리 욕망의 충족과 우리의 지를 제대로 이끌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실천적 이성은 인간의 행복 추구하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기능이다. 어터슨에게 실천적 이성은 물론 그가 생각하는 세상의 질서 유지에 대한 의지와 하이드라는 비인간적 존재에 대한 증오가 결합 되었기 때문에 과연 행동의 동기가 진정 선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일으킨다. 도널드 홀(Donald Hall)의 지적처럼, 어터슨은 자기 “내부의 불안정한 욕망과 남성 동성애적 욕망”(137)을 감추고자 폭력적 행동도 불사하며 사회 질서와 규범을 지키고자 하는 변호사, 해설자, 탐정으로서 역할을 하지만, 사실 그는 “독자, 관찰자, 관음증이 있는 사람”(137)이라고도 평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그가 폴의 부탁을 받고 지킬의 안전에 대해 걱정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그를 하이드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구해내려 했던 선한 의도를 부정하기 어렵다.

어터슨은 친구 지킬에게 벌어지고 있는 ‘반칙’의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행동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폴이 어터슨에게 “제 생각으로는 부정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I think there’s been foul play’)(30)라고 말할 때 사용한 부정한 행위, 즉 반칙은 지킬의 하이드로의 변신 뿐 아니라 하이드가 그의 주인 지킬을 살해했을 것이라는 우려와 의심을 반영한다. 지킬의 연구실 문 앞에서 같은 의혹을 품은 어터슨은 그가 알고 있는 합리적이고 사회적 명성이 높은 부르주아 신사인 지킬의 죽음이자 변태적 욕망의 화신인 하이드의 삶이라는 ‘반칙’을 심판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드러낸다. 따라서 지킬과 하이드의 이중적 삶의 공존 혹은 이성적인 지킬의 죽음과 반이성적 욕망의 주체인 하이드의 유령과 같은 공포스러운 아브젝시옹의 출몰을 법과 이성이 지배하고 이를 지키기 위해 감시 체제라는 장치 및 기제가 운용되는 세상의 경계 밖으로 ‘내던져 버려야’(throwing off) 한다. 경계 밖으로 아브젝시옹을 버리기 위해서 그는 그것이 존재하는 경계 안, 즉 지킬의 연구실 안으로 침입한다. 그는 물리적 도구를 사용해 폭력적 ‘반칙’의 방식으로 안으로 침입해서 안에 존재하는 또 다른 ‘반칙’의 상황을 처벌하고 정리하고자 한다. 지킬의 연구실 문을 경계로 그 안에는 하이드라는 무질서와 혼돈이 존재하지만, 밖에는 질서와 규율을 유지하고 작동시키기 위해서 감시와 폭력이라는 또 다른 혼돈의 상황이 있다. 안의 혼돈은 밖으로 내던져 버려져야 하며, 밖의 혼돈은 안으로 잠입해서 안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과정에서 안과 밖의 경계는 무너지게 된다.

지킬이 그의 유언장이자 고백서인 진술문을 어터슨에게 남기고 그의 재산 상속인으로 더 이상 하이드가 아닌 어터슨을 지목한 것의 의미는 그의 이름 ‘어터슨’(Utterson)을 두 음절로 분리해서 파악해 보면 언어 유희적 함축성과 함께 지킬과 그의 긴밀한 유대를 짐작할 수 있다. 비록 소설의 끝에 어터슨은 지킬의 고백적 진술서를 읽고 직접 발언을 하지 않지만, 그것을 독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지킬의 목소리를 대신 간접적으로 ‘말하면서’(Utter), 가부장적인 남성 부르주아 신사의 사

회에서 지킬의 유산을 상속받는 ‘아들’(son)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부르주아 남성 전문가 집단의 유대, 그들이 행동의 준거로 삼는 절제, 수양, 품위, 용맹은 어터슨이라는 인물로 대표된다. 그는 지킬의 비이성적이고 반사회적 욕망의 주체인 하이드를 감시하고,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자신의 판단을 담은 목소리 대신에 지킬의 서사를 소개함으로써 품격 있는 자아의 내면적 갈등에 대한 진술한 고백의 유언으로 승화시킨다. 광기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인간 정신의 이중성에 대해 논한 아서 위간(Arthur Wigan)은 비록 수백만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자 하는 의지를 갖지만, “자기 명령, 처벌에 대한 두려움, 종교적 원칙, 자존심, 발각에 대한 위험성을 일찍부터 꾸준히 배양하게 되면 의무의 길”(79-80)을 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킬의 마지막 진술서는 사회적 명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빅토리아 시대 후기 영국 사회의 신사집단이 갖는 정언 명령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의 지배 및 우위성을 반영한다. 자신의 목소리 대신에 봉인된 이 진술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그 내용을 공개한 어터슨은 지킬의 법률적 대리인이자 친구로서 죽음을 통해 광기를 극복하고 도덕적 자아의 승리를 선언한 지킬을 증언하고 변호하는 것이다. 어터슨은 그 과정에서 남자다움과 신사로서의 덕목에 대한 그의 실천적 이성을 작동시킴으로써 자신과 지킬을 ‘의무의 길’을 함께 가는 동반자로 여기고 그들의 유대를 공고히 한다.

5. 나오는 말

헨리 제임스(Henry James)에 따르면, 『지킬 박사와 하이드 씨의 기이한 사건』은 스티븐슨의 작품 중에서 “가장 진지한 이야기”(169)로 “인간의 사악한 측면과 고결한 측면 간의 관계”(169)를 압축된 예술적 우화의 형식으로 잘 표현된 소설이다. 제임스가 말한 인간의 악함은 지킬의 또 다른 자아인 하이드를 통해 구현되었다. 그리고 지킬의 고귀함은 그러한 하이드를 자아 속에 타자의 존재로 평가하면서 그의 악행의 결과에 대한 도덕적 양심과 죄에 대한 처벌의 두려움 속에서 그와 내적 투쟁을 벌인 지킬을 통해서 나타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킬의 친구이

자 그의 변호사 역할을 하는 어터슨은 지킬의 합리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며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의 배후 주체이자 조정자로서의 하이드가 누구인지, 그의 정체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다. 그의 욕망은 사건의 실체를 의식 차원에서 이해 가능하고 투명하게 밝히고자 하는 이성적 주체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다. 그는 악을 벌하고 법의 심판자로서 빅토리아 시대 후기의 부르주아 신사의 덕목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부르주아 지식인인 지킬 역시 자기 내면에 하이드라는 법의 상징계로의 편입을 거부하는 원초적 욕망의 힘을 구체적으로 체화한 자신의 상태를 “부조화 상태의 뿔감용 나뭇가지 묶음”(46)으로 묘사하고, “극단의 쌍둥이”(46)라고 할 수 있는 지킬과 하이드가 끊임없이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두 자아의 대립적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 반성적이고 자의식적 주체인 지킬은 극단적 선택을 통해 악한 자아의 선한 자아에 대한 지배와 유혹을 종결짓는다.

그러나 이러한 지킬의 선택을 병적 자아의 자기 파괴적 행동이자 19세기 말 영국 사회의 고상한 부르주아 지식인의 위선적 행동이 불러온 파국이라고 해석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이러한 해석은 부르주아 남성 전문직 계층이 순응한 이데올로기의 지배력은 빅토리아 시대 중반에 그 정점에 달했지만, 후기에 올수록 점점 그 힘을 잃고 노동자 계층을 포함 일반 대중 서민들의 다양한 사회 참여 욕구와 문화 향유에 대한 갈망을 충족 시켜주게 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에 주목한다. 특히 앤드류 스미스(Andrew Smith)는 작품 속 지킬과 어터슨으로 대표되는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념적 가치는 “종말을 맞이한”(moribund) 상태라고 주장한다(38). 품위를 유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자들로서의 그들 문화적 정체성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목해야 할 것은 19세기 말의 특징을 불러온 시대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 이념 전환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부르주아 신사 계급의 건장한 정신 수양과 윤리적 자아로서의 행동에 대한 성찰의 필요성은 비록 그것이 그들을 압박하는 이데올로기적 정언 명령의 형태라 할 지라도, 종말을 고하지 않고 그들의 사회 계급적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동일하면서 대립하는 분열된 자아의 갈등을 통해서 지킬

의 회고적, 반성적 고백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반사회적이고 본능적 자아에 대한 혐오, 범죄 행위의 결과에 대한 법적 심판의 두려움, 도덕적 자아에 대한 옹호가 묘사된다. 그것은 지킬이라는 분열된 이중적 자아의 “심하게 뒤틀리고 여전히 경련을 일으키는 한 남성”(36)의 고통의 몸짓을 통해 그려지고 있다. 또한 지킬의 갈등은 실천 이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이 속한 계급이 요구하는 미덕을 몸소 행하면서 그들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 어터슨의 태도와 맞물려서 부르주아 전문가 계급 혹은 신사집단이 수호하고자 한 절제, 자기 수양, 품위의 도덕적 이데올로기가 극적으로 재현된 교훈이라는 알레고리의 형태로 강조되고 있다. 어터슨이 지킬의 마지막 유언이자 진술서를 주머니에 넣으면서, 폴에게 했던 마지막 발언인 “자네 주인이 도망쳤든 죽었든 간에, 우리는 적어도 그의 명예는 지켜낼 수 있을 거야.”(39)라는 발언은 이러한 계급적 이데올로기 수호의 의지를 전달한다.

스티븐슨의 이 소설은 개인의 성적 욕망 실현, 표면적인 근엄함과 엄숙함 밑에 감춰진 속물적이고 야만적 본성을 들추어내고 억압적 사회 구조로부터 탈피하여 원시적 회귀 상태로의 귀환을 꿈꾸는 무의식적 세계로의 탈출을 암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지킬의 사회적 규범으로부터의 일탈과 자유를 행동으로 옮기는 그의 또 다른 자아인 하이드는 늦은 밤에 안개 자욱한 런던의 소호 거리에 몸에 맞지 않는 큰 옷을 입고 마치 유령처럼 나타나서 비이성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억압된 것이 귀환함을 선언한다. 그러나 이 소설은 이러한 무의식적 욕망이 의식의 흐름을 통해 묘사되는 모더니즘의 실험적 예술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 않으며, 그러한 욕망을 사회적 규범과 도덕적 양심이 작동하는 틀 속에 가두어 제한한다. 19세기 말 영국 사회라는 시공간적 맥락과 부르주아 전문직 종사자이자 신사 계급의 행동 방식이라는 사회 계급적 맥락을 고려해 본다면, 억압된 욕망의 귀환은 사회 및 부르주아 계급 수호 의지로 가동되는 여러 장치, 즉 감시와 처벌이라는 제도의 권력 장치와 더불어 자기 수양에 관한 담론, 법, 의학, 과학의 전문적 지식의 가치 판단적 이데올로기 담론 장치의 작동으로 인해 억압된다.

[ABSTRACT]

Submission to Ideology of Bourgeois Manliness in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Koo Seung-bon(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workings of ideological apparatus through which the values of self-control, restraint, respectability subjugate Dr. Jekyll and Utterson labeled as late-nineteenth-century British bourgeois professional gentlemen in Robert Louis Stevenson's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Although Jekyll temporarily satiates himself with a feeling of liberty occasioned by anti-social behaviors enacted by Hyde both as a splitting self of double and as an atavistic self with primitive desires, the doctor is a subject who is afflicted with a sense of guilt on criminal acts and a fear of punishment. By delving into the significance of multiplicity and contradiction embedded in a phrase, a solution of the bonds of obligation, we will focus on the trajectory of bourgeois professional gentleman's normative ideology uncovered in Jekyll's confessional and self-reflective narrative which ultimately takes ascendancy over the other self who seeks to satisfy one's own desires by escaping from the social restraints of morality and custom with regard to code of conduct. In his efforts to curb Hyde as the representative of insanity and violence, Utterson can be seen as an active agent of dominant discourses aided by the combination of power and knowledge. Conceiving of Hyde as the threatening other undermining the stability of his consciousness and his psyche,

Uttersson tries to make the stability of his respectable and manly self solidified by entrapping Hyde within the boundary of system of control.

Key words: Robert Louis Stevenson, Dr. Jekyll, Mr. Hyde, Manliness, Professional, Solution, Abjection, Allegory, Apparatus

[참고문헌]

- Adams, James Eli. *Dandies and Desert Saints: Styles of Victorian Manhood*. Ithaca: Cornell UP, 1995.
- Arata, Stephen D. "The Sedulous Ape: Atavism, Professionalism, and Stevenson's *Jekyll and Hyde*." *Criticism* 37.2 (1995): 233-59면.
- Botting, Fred. *Gothic*. 2nd ed. Abingdon: Routledge, 2014.
- Brantlinger, Patrick. *The Reading Lesson: The Threat of Mass Literacy in Nineteenth-Century British Fiction*. Bloomington: Indiana UP, 1998.
- Brookes, John. *Manliness and Culture*. 3rd ed. London: Blackwood, 1878.
- Clunas, Alex. "Comely External Utterance: Reading Space in *The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The Journal of Narrative Technique* 24.3 (1994): 173-89면.
- Danahay, Martin. "Dr. Jekyll's Two Bodies." *Nineteenth-Century Context* 35.1 (2013): 23-37 in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6. 2nd ed. Ed. Deborah Lutz. New York: W. W. Norton, 2021. 135-47면.
- Foucault, Michel. *Discipline and Punish: The Birth of Prison*. Trans. Alan Sheridan. New York: Vintage Books, 1979.
- _____. *The History of Sexuality. Volume 1: An Introduction*. Trans. Robert Hurley. New York: Vintage, 1990.
- _____. *Power/Knowledge: Selected Interviews and Other Writings 1972-1977*. Ed. Colin Gordon. Trans. Colin Gordon, Leo Marshall, John Mepham, and Kate Soper Soper. New York: Pantheon Books, 1980.
- Freud, Sigmund. *Civilization and Its Discontents*. Trans. James Strachey. New York: W. W. Norton, 1961.
- Ganz, Melissa J. "Carrying On Like a Madman: Insanity and Responsibility in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Nineteenth-Century Literature* 70.3 (2015): 363-97면.
- Garrett, Peter K. *Gothic Reflections: Narrative Force in Nineteenth-Century Fiction*. Ithaca: Cornell UP, 2003.
- Gaughan, Richard T. "Mr. Hyde and Mr. Seek: Utterson's Antidote." *The Journal of Narrative Technique* 17.2 (1987): 184-97면.
- Halberstam, Judith. *Skin Shows: Gothic Horror and the Technology of*

Monsters. Durham: Duke UP, 1995.

Hall, Donald E. *Queer Theories*. Basingstoke: Palgrave, 2003.

Hogle, Jerrold E. "The Struggle for a Dichotomy: Abjection in Jekyll and His interpreters." *Dr Jekyll and Mr Hyde after One Hundred Years*. Ed. William Veeder and Gordon Hirsch. Chicago: U of Chicago P, 1988. 161-207면.

James, Henry. "Robert Louis Stevenson." *Partial Portraits*. 1888. Westport: Greenwood, 1970. 137-74면.

Jameson, Fredric. *The Political Unconscious: Narrative as a Socially Symbolic Act*. Ithaca: Cornell UP, 1981.

Kant, Immanuel. *Groundwork of the Metaphysics of Morals*. Trans. Mary Gregor and Jens Timmermann. Cambridge: Cambridge UP, 2012.

Keltner, S. K. *Kristeva: Thresholds*. Cambridge: Polity, 2011.

Kristeva, Julia. *Powers of Horror: An Essay on Abjection*. Trans. Leon S. Roudiez. New York: Columbia UP, 1982.

Kucich, John. *Repression in Victorian Fiction: Charlotte Brontë, George Eliot, and Charles Dickens*. Berkeley: U of California P, 1987.

Lacan, Jacques. *The Psychoses: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3: 1955-1956*.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Russell Grigg. London: Routledge, 1993.

_____. *The Seminar of Jacques Lacan. Book I. Freud's Papers on Technique 1953-1954*. Ed. Jacques-Alain Miller. Trans. John Forrester. New York: W. W. Norton, 1988.

Maixner, Paul. ed. *Robert Louis Stevenson: The Critical Heritage*. London: Routledge, 1971.

Matus, Jill L. *Shock, Memory and the Unconscious in Victorian Fiction*. Cambridge: Cambridge UP, 2009.

Nabokov, Vladimir. *Lectures on Literature*. Ed. Fredson Bowers. New York: Harvest Book, 1980.

Shaw, Marion. "'To Tell the Truth of Sex': Confession and Abjection in Late Victorian Writing." *Rewriting the Victorians: Theory, History, and the Politics of Gender*. Ed. Linda M. Shires. New York: Routledge, 1992. 87-100면.

Showalter, Elaine. *Sexual Anarchy: Gender and Culture at the Fin de Siècle*.

- New York: Viking, 1990.
- Smith, Andrew. *Victorian Demons: Medicine, Masculinity and the Gothic at the Fin de Siècle*. Manchester: Manchester UP, 2004.
- Stevenson, Robert Louis.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1886. 2nd ed. Ed. Deborah Lutz. New York: W. W. Norton, 2021.
- The Dublin Review* 15.2 (April 1886): 422-23면.
- Veeder, William. "The Texts in Question." *Dr Jekyll and Mr Hyde after One Hundred Years*. Ed. William Veeder and Gordon Hirsch. Chicago: U of Chicago P, 1988. 3-13면.
- _____. "Children of the Night: Stevenson and Patriarchy." *Dr Jekyll and Mr Hyde after One Hundred Years*. Ed. William Veeder and Gordon Hirsch. Chicago: U of Chicago P, 1988. 107-60면.
- Wigan, Arthur Ladbrooke. *A New View of Insanity: The Duality of the Mind*. London: Longman: 1844.
- Williams, M. Kellen. "'Down with the Door, Poole': Designating Deviance in Stevenson's *Strange Case of Dr Jekyll and Mr Hyde*." *English Literature in Transition, 1880-1920* 39.4(1996): 412-29면.